

# 계으른 자 깨치지 못하리라



## 혜정 스님

(보은 법주사 회주)

불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 되는 점을 한마디로 압축해 규정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와 불교가 특징적으로 차별이 되는 것은 신(神)을 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이지요. 다시말해 인간을 중심으로 마음을 찾아서 깨쳐가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육신과 마음이라는 2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다 내뱉지 못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저승이요 죽음이요. 육신을 묶어 관속에 넣은 뒤 다비장해서 태워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한 줌 재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참나일까요? 육신은 거짓 자아 즉 겉데기에 불과합니다. 참자아인 진아(眞我)는 바로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입니다. 참자아인 마음이란 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음의 모양은 저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형상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물건은 '있다 없다'의 개념을 초월한 물건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찾아서 깨치는 것일까요? 옛 조사 스님들은 마음을 찾아서 깨치려

한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양동이에 있는 물이 물건을 적실 수는 있지만 물이 물 자체를 씻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도 결코 갖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왜 마음을 찾는 종교라고 하는지, 마음을 찾는다는 자체에 대한 달레마에 불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의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 것인 마음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부 방법은 다른 학문과 차별을 갖는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음찾는 확실한 방법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재가자

### 화두마저 사라져야 무심의 경지 도달 본래 마음 못찾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든 출가자든 할 것 없이 구경(兜兜)의 경지에 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찾을 것인가' 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책도 생각도 내려 놓고 마음을 찾아 한 번 발벗고 나서봅시다. 마음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음을 찾아가는 접경으로 간혹선, 많은 조사 스님들의 선재림륙인 조사어록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분이 바로 조주 선사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한 제자가 묻자 "무(無)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고 묻자 "유(有)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그럼 스님에게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나는 없느니라"고 답했습니다.



10월6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불광회 창립 30주년 법회에서 혜정 스님이 "오른손을 반씩 들어 당당하고 멋지게 살자"고 주문자 참석자들이 손을 반씩들어 보이고 있다.

## 엄격한 수행가풍 · 돈독한 신심 중시

혜정 스님은 스님은 엄격한 수행가풍을 중시 여긴다. 환상 불자들은 부지런해야 한다며 근면한 수행을 강조하는 가하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라고 이르기도 하신다. 무슨일이든지 일념으로 정성을 가지고 해야만이 깨치거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살 때 출가한 예산 수덕사로 출가했다. 195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62-83년 1-8대 조계종 총무원, 1972년 중앙종회 부의장, 1977년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법주사 주지와 출주 소임을 거쳐 지금은 법주사 회주로 사리각에 주석하고 계신다. 특히 혜정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정진에 있어서는 교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력

과 확고부동한 신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십년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고 밝힌때마다 강조한다. 한마디로 수행이 얼마나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신심이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돈독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라는 것이다. 신심을 바탕으로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해결 때 그 의심망이라는 깨지고 깨달음을 증득하게 된다며 불자들에게 항상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



### 늙은 어머니의 눈물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에 의하면 죄인의 목은 전다라족 사람이 베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목을 자르기로 되어 있는 전다라족 사람은 '공교롭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와서 죄인의 목을 쳐라." 이렇게 명하는 왕의 사신에게 그 전다라족 사람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일은 꼭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몸은 비록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왕은 크게 노하여 그를 불러 준엄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천한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하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별레 하나의 목숨도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인이 아무리 국약무도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울라 소리쳤습니다. "이 자도 끌고 가서 죽여 버려라." 이때 이들 일곱 형제의 어머니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제발 이 이들의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단 하나 남은 제 막내아들입니다." 왕은 노파의 이런 애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아들 여섯도 모두 너의 친자식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는 잡자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일곱째 아들 하나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냐?" 늙은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앞서 목숨을 잃은 아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으면서 나쁜 짓을 저지른 죄이 없으니 죽는다 한들 제 마음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내아들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끼면 나쁜 생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이 이들의 목숨만은 구해

## 극악한 범죄 저지른 10대들의 부모에게서 자식의 삶 가없이 여기는 통곡 듣고 싶어

그러자 왕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가 그토록 고집을 부려 죄인을 죽이지 않으면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텐데...?" "대왕이시여, 제 몸은 대왕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은 비록 저 하늘의 제석천왕이 명령한다 하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만 이성을 잃고 노하여 그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그 남자의 아버지와 여섯 형제를 모조리 끌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저 오만방자한 녀석이 감히 왕의 명을 어겼다. 그러나 너희들이 대신 저 죄인의 목을 쳐라." 왕은 그 남자의 아버지에게 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거부하였습니다. 곧이어 그의 형제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왕은 그 사나이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막내가 남았습니다. "자, 어머니? 너라도 죄인의 목을 쳐라." 막내 동생은 자기도 왕의 명을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주십시오." <대장엄론경> 제8권 십대 아이들이 또래 여자 아이를 감금하고 밤새도록 폭행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는 뉴스를 막 접하였습니다. 저는 흥분한 나머지 "저런 못된 애들은 그 부모를 잡아다 혼내 줘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뉴스를 보던 남편은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아마 어떤 부모는 이미 내놓은 자식이니 내 책임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 물론 위의 경에서는 극악한 범죄자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도 틀림없이 경황서로 불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다 제 잘못입니다. 부모인 제가 벌을 받았습니 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니. 응?"하며 자식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니 법대로 처리하십시오"라는 말만큼은 나오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식의 삶 그 자체를 가없이 여겨 눈물을 흘리는 그 늙은 어머니의 애원을 듣고 싶습니다. ■ 이미형(중국여경원 역경위원)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 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서도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주지 혜명 합창**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비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원비

##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움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믿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물질재물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 의 지중환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기울여 오셨던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호한 치료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속눈썹, 소아일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필만한 마음으로 꼭 한번 체험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침연구소  
**TEL. (02) 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창**

##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질,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중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 승복법복 판매 안내

###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고급 모직(縞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 무명(역물, 순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 면 목화솜 누비(면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 모직 특수솜 누비(縞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비누라, 기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면대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기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생사를 걸고 반드시 깨치야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백척간두에 진일보 한다면 확실히 대오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혜정 스님.

제자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스님께서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되물자 “나는 중생이 아니니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제자가 물기를 “그럼, 선사는 부처이십니까?”라고 하자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그러면 스님은 무슨 물건입니까?” 라고 하자 “물건도 아니니라”고 했지요.

그러면 “생각이나 말로는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생각으로도 말로도 이것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라, 생각도 말도 추구하는 길이 단절된 것이니라, 그러나 화두를 잘 음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찾는 방법입니다. 생각과 말로는 미칠 수 없으므로 불가사리와 표현할 수 밖에 없지만 직관의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화선 또한 직관의 방법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화두 참구입니다.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화두를 들고 깨치면 바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무의 선사의 말을 되새겨 봅시다.

“하늘을 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을 봐도 땅이 보이지 않는다.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으니,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화두를 깨칠 것이며 이것을 깨지 못하면 내 허를 자르라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기는 어렵고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오미자차를 내가 마신 후 이 맛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본들 100%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오미자 맛이 ‘시고 달다’라고 설명해 본들 여러분이 직접 이 오미자 차 맛을 봐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대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미자차의 맛을 알려면 오미자를 마셔보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화두를 들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禪)은 실천(경험)이지 머리(생각)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분량이 방대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마음’입니다. 자신이 직접 마셔보고 체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은 남의 것일 뿐이지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버려야지 그것을 끄까지 지고 가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렇듯 나중에는 화두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화두마저 사라지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無心)의 경지이지요. 그 경지까지 가면 움직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심의 경지가 우리가 바라는 구경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인 것처럼 무심한 경지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 했습니다. 생사를 걸고 반드시 깨쳐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먹는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와 마음에 들 때만이 확실히 대오할 수 있지요.

내가 하는 법문만을 믿지 마세요. 그 법문의 뜻만을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실천에 옮기는데

### 종교는 나를 위한 선택

### 너무 신성시해선 안돼

### 무엇을 하든 당당하고

### 열심히 하는 삶이 멋진 인생

힘써야 합니다. 물의 수원이 없으면 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본래의 마음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짐승 등 모든 생물체에는 본래 마음이 존재합니다. 즉 개 유불성(皆有佛性)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물지를 않았습다. 몇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의심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으나 옮기만 할뿐 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불도를 닦아라.”

불자들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병폐인 게으름 때문에 그 행운을 잡지 못하고 번뇌 망상과 집착에 빠져 살아갑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과하면 자기를 망치고 집안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공부할때만이라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당당하고 열심히 하는 삶이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을 가장 당당하고 멋있게 살다가 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습도 본받읍시다.

자, 여러분 오른 손을 번쩍들고 따라 하세요. 그리고 힘차게 외쳐 봅시다.

“당당하고 신나게, 멋있게 살자.”

정리=김주입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선곡 스님 (上)

선곡(禪谷) 스님은 1898년 태어나 1968년 입적했다. 육조 혜능 대사처럼, 머리 깎은 스님이 되기 전에 깨달음을 얻은 기연을 가졌던 스님이다. 선곡은 자호(自號)이고 법명은 도운(道允), 법호는 설곡(雪谷)이다. 열일곱에 송광사에 들어가 공양주를 보면서 행자생활을 삼년이나 했다.

요즘엔 행자 생활을 해도 머리를 깎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머리를 그대로 두고 속복을 입은 채로 했다. 세월이 한참 가서 짙게 익숙해질 무렵에야 머리를 깎고 고 목을 옷을 입을 수 있게 했다.

어느 날 선곡은 점심을 먹은 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삼일암(三日庵)에 들어가게 되었다. 삼일암은 나중에 효봉·구산·법정·보성 스님 등 쟁쟁한 선사들이 주석하면서 수좌들과 일반인에게

지금도 비로암은 아주 작은 암자로 승려들이 편하게 있을 곳이 못되는데 당시에는 더 형편없었다. 그렇게 있다가 다른 스님들은 다 나가고 선곡 혼자서 10여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선하던 다리를 풀고 경행이 나 할까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다 조계산 능선에 아침별이 내리쬐는 모습을 보고 홀연히 깨달았다.

계승을 물어내고 꽃이나 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산 아래 선암사로 전했다. 당시 선암사 본절에는 뒷날 4대 강백(剛伯)종 한 명이라 일컬어지던 경봉(景鵬)스님이 절전선원 조실로 있었다.

선암사 출신 대강백은 함평(涵評), 경봉(景鵬), 경운(驚雲), 금봉(鎭峯), 네 스님이다. 경운 스님은 조선불교의 초대 교정으로 추대되었지만 나서지 않아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권한대행을 하게 한 선교 일치의 거장이었다. 나머지 세명의 스님도 강백으로 유명했지만 선(禪)에도 일가를 이룬 거장들이었다. 경봉 스님이 사람을 불러 선곡을 내려오게 하고는 들었다.

### 삼일암서 심우도 보고 발심 10여년 정진...출가전 오도

“이상한 소리를 한하는데 무엇을 보았다는 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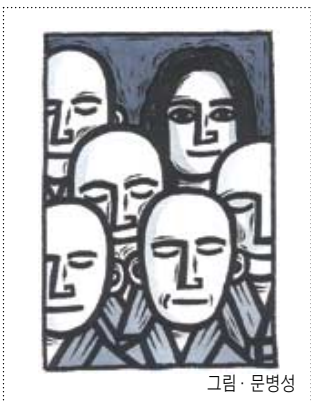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아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봉 스님은 시자를 불러서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을 내오게 해서 시자에게 읽어주라고 했다. 한데 선곡은 몇 줄을 들더니 말했다.

“아직 한 번도 읽어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이 짐작이 갑니다.”

하면서 초심(初心)부터 자경문(自警文)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경봉 스님이 선곡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출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인으로 소문이나 있었던 용성(龍城) 스님을 찾아 갔다. 선곡은 봉두난발한 채로 용성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끌거리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용성 스님은 물건이 왔다면 선곡을 인가하고 자신의 수제자인 선암사의 선파(禪坡) 스님 밑으로 옮겨가시켜 법을 있게 하였다. 그때 선곡의 나이 29세였다. 선파 스님 밑으로 옮겨왔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법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만공(滿空) 스님을 찾아가서 거광을 하였다. 마침 만공 스님은 법주사에 머물고 계셨다. 만공 스님이 법상에 올라 대중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선곡 스님이 법을 듣고자 하니 만공 스님이 “네가 얻은 소식을 일러라.” 하였다. 선곡 스님이 좌정하고 말없이 빙그레 웃자 만공 스님은 “네가 왔으니 내 법문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하시며 법상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한다.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그림·문병성

낮익은 암자가 되었다. 암자에 들어가 이리저리 살펴다가 병풍을 하나 보았는데 무슨 소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서 펼쳐지지 않았다. 요즘 같으면 불교를 조금만 알아도 심우도나 심우도(壽牛圖)나 하고 알아보았을 텐데 당시에는 아는 이가 드물었다.

선곡은 이상하게도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선곡은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떨어진 외양간을 뒤희쳐 나온 소! 그 소를 나도 꼭 찾아야지!” 의지를 굳추 세웠다. 삼일암을 내려온 선곡은 송광사 원주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파내리 뒷길을 써서 조계산을 올랐다.

언젠가 스님들이 한담을 하면서 이야기한, 참선하는 수좌가 살고 있다는 비로암(毘盧庵)으로 갔다. 비로암은 송광사의 뒷산을 넘어서 비탈 양지바른 곳에 있었다. 선암사 산내 암자로서 처음 아도화상이 이곳에 도량을 열었다고 한다. 비로암에는 당시 두 세 명의 수행자가 또아리 치듯이 좌선만 하고 있었는데 선곡도 아침저녁으로 밥을 해주면서 참선을 같이 했다. 생각해보면 머리를 뺨뺨 깎은 스님들 틈에 봉두난발한 속인이 같이 있는 것이 이상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수행을 했다.

## 육법등 (六法燈)



의창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이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려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추천 및 대리점 모집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

###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탐, 아잔타석굴, 옐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몰바이-옐로라-아잔타-산치대탐-카주라호-아그라-싱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몰바이-옐로라-아잔타-산치대탐-아그라-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 육법등 (六法燈)

의창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이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려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추천 및 대리점 모집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